

# ‘그림’으로 버텨낸 삶 재일 화가 오일을 만나다



▶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 ‘존재’

##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오일-Zero(無)의 외침’전

다큐 영상 ‘사람과 만남’의 낯은 흑백 화면속, 작가는 말한다. “나의 그림은 모두 자화상이다. 가슴 터질 정도로 아픈 고향의 모습을 기억한다. 늘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의 문제를 놓지 않았다. 풍상하는 힘으로 풍경을 바라보며 힘든 현실의 반전을 꾀했다. 필사적인 풍상이다.”

재일조선인이 받아야 했던 지독한 차별과 천대, 온갖 허드렛 일을 해야 했던 지난, 20대부터 20년간 계속된 정신질환,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비판의식, 인간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고뇌... 작가 오일을 사로잡았던 것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는 ‘그림’을 버티고 살아 예술혼을 발산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조진호) 하정웅미술관이 조금은 생소한 재일 미술가(1939~2014) 오일을 호출, 그의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오일-Zero(無)의 외침’을 주제로 오는 5월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하정웅미술관 개관 1주년이자, 오일 작고 3주기를 기념해 마련했다.

회고전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기획전에서는 광주시립미술관과 수립문화재단에 소장된 하정웅컬렉션 300여점 중 주요작품 80여점을 선별해 전시 중이다.

“그에게 창작활동은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이 자신을 지탱해주는 삶의 동력이었다”는 전시 기획자 김희량(광주시립미술관 분관장)씨의 언급처럼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의 그림들은 어둡고, 암울한 느낌에서 한발 더 나아가 ‘희망의 빛’을 전한다. 무엇보다 거침없는 붓질과 화려한 색채감이 관람객을 붙잡는다.

오일 회화의 특징은 어린아이의 그림처럼 단순하고 밝고 거침없다는 점이다. 분출하는 감정과 영혼의 소리를 거침없이 쏟아 낸듯한 붓터치와 대담한 표현력은 정열적인 그의 삶을 대변하는 듯하다.

하정웅컬렉션 중 80여점 선별  
방향·인간 등 주제별 전시  
1995년 제작 ‘광주’ 연작 눈길  
오늘 개막...다큐도 수시 상영



▶ ‘광주 B’

그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 복잡다단한 인간사, 불합리한 20세기를 향한 울분과 분노, 자연의 신비와 우주의

원리 등을 테마로 작업을 전개해 나간다.

전시는 ‘방향’, ‘인간-미완에서 미완으로’, ‘미칠 것만 같은 계절’, ‘무한의 수수께끼’ 등 주제별로 분류했다. 1층 1전시실 ‘인간-미완에서 미완으로’에서는 다양한 인물화를 만날 수 있다. 강렬한 색채와 대담한 표현으로 거침없이 표현된 얼굴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하며 ‘존재’ 시리즈는 삶을 응시했던 작가의 마음을 보여준다.

2층에서 만나는 ‘미칠 것만 같은 계절’에서는 1995년에 제작한 ‘광주’ 연작 두 점과 통일을 갈망하는 작품, 아만의 시대를 향한 그의 강렬한 외침을 담은 회화들을 만날 수 있으며 ‘방향’을 주제로 한 전시관에서는 고향의 산천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활용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일본 히로시마 태생인 오일은 원폭투하 당시 한국으로 피난, 1950년까지 경남 거창에서 유년기를 보낸다. 이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12세에 가족해탈, 염색기계 등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힘든 청소년기를 보낸다. 조선신문사에 근무하며 정치 만화를 그리다 유희를 접하고 자유미술전에서 입선하며 화가의 길로 접어든다.

이후 조총련 계열의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미술부’에 소속돼 활동했으며 1962년부터 2004년까지 35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을 정도로 왕성하게 작업했다.

개막식은 3일 오후 5시에 열리며 오후 4시 30분부터 1980년 후쿠다 다카시가 제작한 다큐영상 ‘사람과 만남’을 함께 관람한다. 25분 분량의 다큐는 전시 기간 중 수시로 상영한다.

또한 연계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초상화를 그리고 전시하는 ‘나, 너, 우리의 초상화 그리기’, 미술치료전문가와 함께하는 ‘초상화로 마음 읽기’ 등이 진행된다. 문의 062-613-53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대만국가교향악단과 백건우 협연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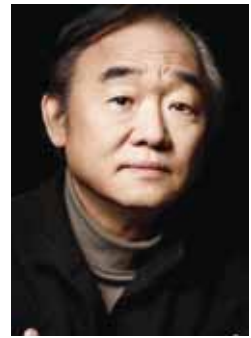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 ‘SAC ON SCREEN’...5일 빛고을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은 ‘2018 SAC ON SCREEN’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대만국가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백건우(사진)가 만나는 협연무대를 준비했다. 5일 오후 8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2018 교향악축제’ 중 대만의 마에스트로 샤오치아 튀가 이끄는 대만국가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협연 연주회를 실황 중계한다.

샤오치아 튀는 미국 인도나 음대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지휘 콩쿠르인 프랑스의 브장송 콩쿠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카릴 콘드라신 콩쿠르, 이탈리아의 페드로티 콩쿠르 등을 석권했다.

백건우는 지난 2011년 대만에서 열린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 ‘양청원 민국예백 문화 콘서트’



와 2013년 대구 아시아 오케스트라페스티벌을 통해 대만국가교향악단과 협연 무대를 가졌다.

레퍼토리는 대만계 현대 작곡가 고든 친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세 개의 원주민 노래’ 중 ‘춤추는 노래’,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내림 마장조 S.124’,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6번 b단조 Op. 74 ‘비창’이다. 다음 상영작은 연극 ‘달래 이야기’(26일 오후 7시 30분)이다. 무료관람. 선착순 100명. 전화예약. 문의 062-670-7942.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극장 5일 영화제 수상작 잇따라 개봉

광주극장이 오는 5일 영화제 수상작들을 선보인다.

‘레이디 버드(Lady Bird)’는 17살 여고생 크리스틴의 꿈, 사랑, 우정을 유쾌하면서도 가슴 찡하게 담아낸 성장영화이다. ‘브루클린’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여온 시얼샤 로넌이 그레타 거워 감독의 뮤즈로 호흡을 맞췄으며 제75회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팬텀 스레드’는 1950년 런던, 의상실 우드콕의 디자이너 ‘레이놀즈’와 그의 뮤즈이자 연인 ‘알마’가 벌이는 욕망과 집착 사이 걸잡을 수 없는 러브 스토리를 담은 영화이다. 거장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과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3회 수상에 빛나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의 만남으로 기대감을 높였고 전세계 영화제 32관왕을 차지했다.

‘콜 미 바이 유어네임’은 1983년 여름, 17살 엘리오와 24살 올리버 두 사람의 뜨거웠던 사랑을 담은 영화다.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름 풍경은 물론 감성을 자극하는 환상적인 사운드트랙이 조화를 이룬다.



▶ ‘팬텀 스레드’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는 천진난만한 아가씨와 그녀를 남몰래 좋아하는 선배의 짝사랑 로맨스를 그린 영화로 일본작품 최초로 제28회 오타와 영화제에서 장편 부문 그랑프리상을 수상했고 제41회 일본아카데미 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4-5858.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MBC ‘콘서트 난장’ 다시 팬들 곁으로

6일 ‘신현희와 김루트’ 출연·무료 공개 녹화

광주MBC(사장 송일준)가 제작하는 고품격 라이브 음악프로그램 ‘문화콘서트 난장’(기획·연출 김민호, 이하 ‘난장’)이 실력과 뮤지션과 함께 팬들에게 돌아온다.

2007년 3월 첫 방송 이래 100% 라이브 음악무대로 대중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난장’은 지난해 8월부터 제작이 중단됐었다.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광주MBC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공연 녹화에는 어쿠스틱 듀오 ‘신현희(사진)와 김루트’, 밴드 ‘뷰렛’의 보컬 문혜원의 솔로프로젝트 ‘문정왕후’, 밴드 ‘로맨틱펀치’의 보컬 배인혁 밴드 ‘위아더나잇’이 출연한다.

또한 4월 두 번째 공연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숨은 보석을 찾아라’는 가장 핫한 신인 한 팀을 선정, ‘난장’ 출연 기회를 제공하고, 선배 뮤지션과 콜라보 무대를 꾸미는 미션을 진행한다. 무료 관람 신청은 인터넷(nanjangse11.blog.me)에서 할 수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2018년 5월 3일 (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165,000원 (VAT포함)

입장 18:40 / 식사 19:00 / 공연 20:00 / 퇴장 21:40 (룸케익증정)  
16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5월 가정의달 맞이  
신양파크호텔 감사 디너쇼

2018 Dinner Show

남궁옥분, 임백천, 이치현과 벗님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